

# 메주고리에

제18호



Medjugor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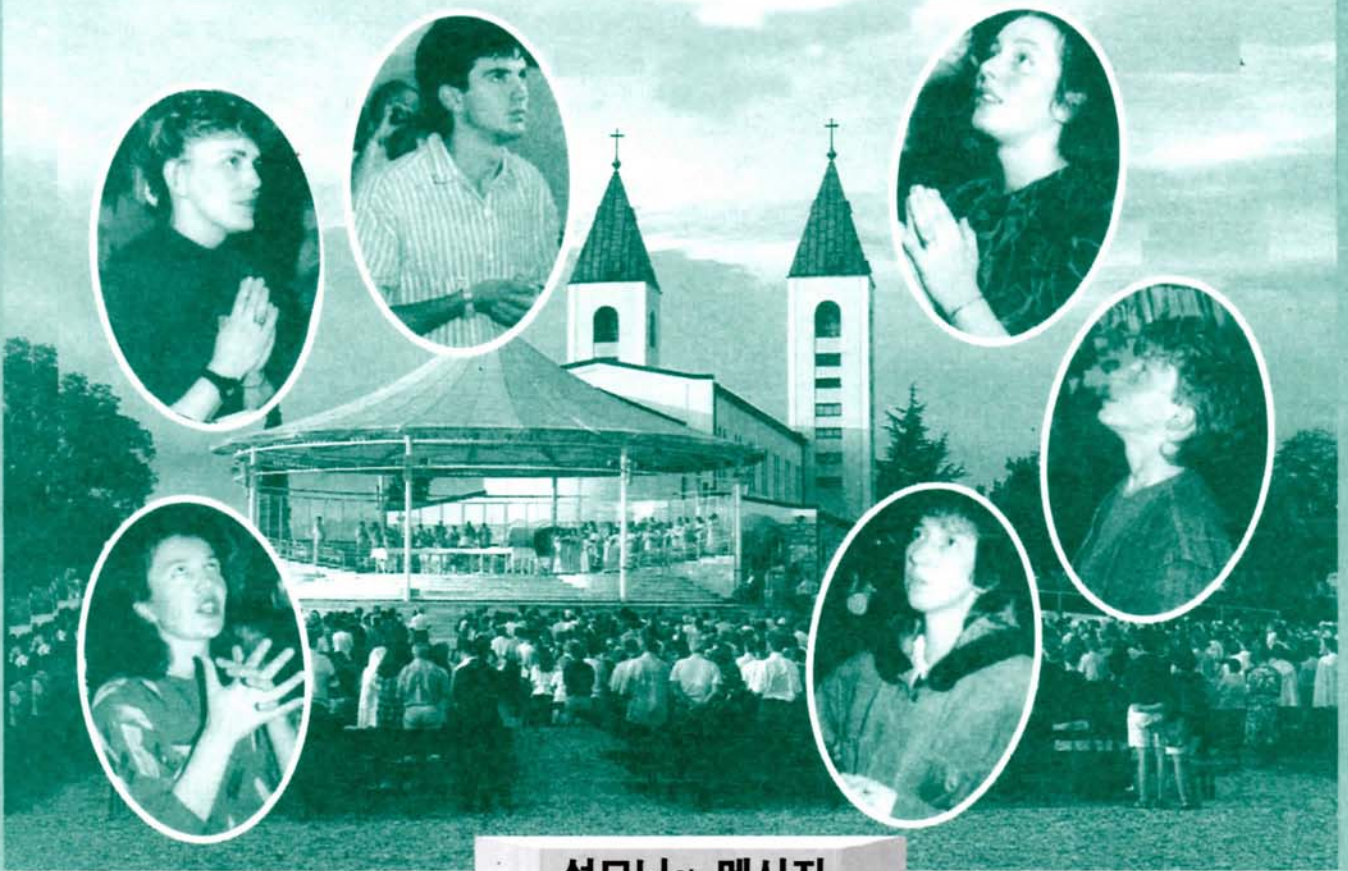
발행인 : 신경남 스테파노

편집인 : 남미자 미카엘라

JULY, 2003

자문위원단 : Fr.Jozo Zovko, 김기수 신부, 정의철 신부, 표신천 신부, 박명근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말따 (선교학박사)

기도가 너희의 일상적 생활이 되도록 하여라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역시 나는 큰 기쁨 속에서 너희가 내 메시지를 따라 살도록 너희들을 부른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살아주어 고맙구나. 나는 너희들이 새로운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더욱 더 내 메시지들을 새로이 하기를 너희에게 청한다. 기도가 너희의 일상적 생활이 되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구나.

<2003년6월 25일>

평화의 모후 선교회

## 고진감래



그동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의 모후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어야했던 많은 일들을 '고진감래'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험난하고 먼 길을 출발하면서도 오직 성모님께만 의지하며 달려온 길이었습니 다. 때로는 가는 길이 막히고 끊어질 때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두 손모아 기도하면 그때마다 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 해주시며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성모님의 현존을 체험 할때는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잡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속의 행복감 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평화의 모후 센터'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많은 어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는 평신도가 하는 일이기에 많은 모함과 질시를 받는 것 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중심이 되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체로서 발족 하게되니 감회가 새롭습니 다. 새로운 자문위원단과 소식지 편집을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선교회에 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 다. 선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인한 특별한 은총에 힘입어 우리 교회공동체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 다.

성모님의 겸손과 희생, 사랑의 실천으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서로 평등함의 일치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새로운 소명으로 맡겨진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직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동안 맡아왔던 소식지의 편집인 직책을 새로이 구성된 편집부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약함을 잘 알기에 후원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 드리오며, 더욱 더 성숙한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되도록 분투 노력하겠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남그레고리오 드림 -



## 기도와 평화의 학교 메주고리에

백남국 요한 신부

- 디트로이트 한인성당 주임 -

저는 지난 5월에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통하여 메주고리에로 기도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메주고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당 신자들 중에 순례를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도 신부로 함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순례를 가면서도 메주고리가 어떤 곳인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발현사실이 저에게 성모 신심을 더 증진시켜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성모님의 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에 대해서는 단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고 지금도 목격증인들을 통해 계속 발현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을 알고 있었고, 메주고리가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라는 나라에 대해 인터넷에서 읽어 본 것이 전부 였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온 지금은 이 순례의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분들이 메주고리를 알고 순례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신앙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았고, 그 곳에서 제 신앙생활을 생기 있게 만들어 줄 영적인 힘을 많이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현존하시는 성모님께 대한 제 나름대로의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체험이 제 신앙생활의 생기를 복돋아 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지만 먼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 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메주고리에에서 보내는 하루 일정은 매일 아침에는 한국 순례자들과 함께 드리는 한국말 미사로 시작하여 오후에는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드리는 묵주기도와 저녁 미사, 그리고 성시간을 지내고 나면 하루 일정이 지나갔

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동산과 십자가산을 오르며 기도하거나, 한때는 마약중독자였으나 약은 전혀 쓰지 않고 노동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된 젊은이들의 공동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등, 매일 매일이 하느님과 성모님의 품안에서 쉬는 피정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발현당시 6명의 목격증인들 중의 한사람인 이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되었습니다. 이반은 아직도 매일 저녁 성모님의 발현을 본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시간이 되면 순례 온 신부님들을 자기집 경당으로 항상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 저녁, 말레이시아 신부님, 나이지리아 신부님과 함께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하던 마을 여자를 따라 이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사실 내심으로는 그 초대를 별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니 집 입구에 조그마한 경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신부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경당 중앙에는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 앞에서 모두 장쾌를 하고 영어와 크로아티아어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서 영어로 묵주기도를 따라하였으나 제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신부님들의 기도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져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성모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의 모습은 메주고리에에서 보던 다른 성모상과는 달리 동양적인 얼굴을 한 성모상으로 크기가 80-90cm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목격증인 이반이 들어와서는 성모상 앞에서 장쾌를 하고, 성모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 보면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성모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모상에서 빛살 무늬의 광채가 계속해서 퍼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주위에 계신 신부님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다른 신부님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모상을 계속 바라보니 성모상의 얼굴이 살아있는 성모님의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모상의 얼굴에서 볼 부분이 빨갛게 변하더니 다음은 입과 눈 주위가 미소를 지으시는 것 처럼 변하고는 다음에는 성모님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주위의 신부님들을 살펴보았으나 그분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함도 없는 것을 보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살아 계신 것 같은 성모님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 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얼굴은 본래의 성모상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장례에서 일어나 앉으며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떠나 가셨다면서 일반적인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다 알아듣지는 못하였으나 대략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것과 “우리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에 대해 성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과 우리들이 가져온 성물들과 편지들에 대해서 축복하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와서 한 시간 동안을 혼자서 걸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성모님을 보았다고 생각 했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저는 성모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왜 성모님께서 저에게 그처럼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메주고리에”에서 제 신앙생활의 생기를 북돋아 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체험을 하고 기쁘기는 하였으나 이 체험이 제 마음속에 그리 오래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제 마음이 설레고 마냥 기뻐했으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평소와 똑같은 느낌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꿈에서 성모님을 본 것과 같은 느낌 외에는 더 이상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 체험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감흥으로 다가오고 제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은 “메주고리에”에서 체험했던 기도와 믿음의 뜨거운 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주고리를 전해주고 싶은 이유도 그곳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기쁨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진정한 평화와 나오고 평화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평화와 거룩함의 기운, 20개

정도의 고해소 앞에 끊임없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고해자들의 진정한 참회의 마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들어선 성당에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드리는 미사와 묵주기도와 성시간의 찬미와 열기는 저에게 신선한 감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발현산과 십자가 산을 찾아 올라가는 저희 일행들의 기도와 열기, 야외 벤치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평화로움들을 보면서 제 신앙의 반성과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의

참회 속에... 진실한 기도 속에... 이웃의 평화로운 얼굴 속에 계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저희 일행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메주고리에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를 가르치는 곳 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례를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쁨과 힘을 알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M**

**“ 초대합니다.”**

## 미동북부 성령대회 2003

**누구든지 새로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말씀과 은혜의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새롭게 태어나  
매일 매일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일 시 : 2003년 7월 26일(토) 오전 9:00 - 오후 10:00  
7월 27일(주일) 오전 9:00 - 오후 5:00

장 소 : Bergen County Technical School - Auditorium  
200 Hackensack Ave. Hackensack, NY

강 사 : Robert Degrandis 신부

주최 주관 : 미동북부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CRSC-NE)  
회장 : 임문수, 지도신부 : 박용일 산부

참가비 : 어른 30불(3식 포함)

등록 장소 : 미동북부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CRSC-NE)  
Tel.: 201-836-0600 E-mail: crscne@hotmail.com

자세한 문의는 성령쇄신 봉사회 사무장 이데레사(201-398-1170) 자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6월 25일은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지 22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22년동안 매일 동시에 목격증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교회 역사상 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왜 이렇게 어머니께서 매일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느지를 시사하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친구 중 하나가 들려준 거식증(신경성 식욕 부식증)을 앓고있는 어느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식증을 앓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은 갖은 치료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더 먹을 수도 없었고 형편없이 말라가는 것을 보며 그녀의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방법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소위 친밀요법으로 환자와 그의 어머니가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어디나 함께 다니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거식증의 요인이 어느 정도 유아기때부터 어머니와의 적절한 유대관계가 맺어지지 못하여 인격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데서 오는 자아상실의 한 표현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치료법은 효과를 거두었고 이 젊은 여성은 마침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성장기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 아기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그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미래와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신을 가진 건강한 인격체가 되도록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도와줍니다.

### (6) **MEDIJGORJE**

우리는 모성의 결핍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시대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께 아주 가까이 오게함으로써 우리를 어머니와 일체가 되도록 도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로서 우리와 친밀히 교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말 완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와의 그런 유대를 갖기 위해 매일 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주십니다.

정말 대단하지않습니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얼핏 보기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디만 그 메시지들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과 희망을 환기시켜줍니다. 다른 어머니들과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자신과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모두에게 진정한 친밀 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친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를 통해 예수성심에 친밀히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 **M**

# 땅끝까지 전하는 하느님 사랑

김기수 신부

-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주임 -

1월 11일, 토요일

어젯밤, 연길에 도착하니 너무 늦어서 유기촌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길 양교수님택에서 잤다. 오늘 오전에는 화룡에 가서 권철호 전도사 부인을 만나서 지난 한해 동안 화룡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김집사, 이정호 집사, 최집사, 조집사와 함께 차집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두만강변 마을, “리슈”에서 만났던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왼쪽 손을 툽날에 찔려서 오른 손만 있는 아주머니 김명화 씨와 다른 두 아주머니들이 와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집사택으로 가서 그분들을 만났다. 집에 들어가니까, 바닥이 얼음장 같이 차가운 방에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떨고있었다. 점심을 먹었느냐고 물으니가 먹었다고는 하는데, 빈 그릇들을 보니 반찬도 없이 찬밥만 먹은 것 같았다. 나는 북한에서 금방 온 아주머니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점심을 먹고 왔노라고 거짓말을 하고 김집사와 권전도사 부인만 식사하고 오라고 내보내고 그 시간에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주위에 누가 있으면 불안해서 말을 잘 안하고, 또 한다고 해도 솔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오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나 혼자만 남았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지난 한해 동안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없이 참혹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 중에 김명화 씨는 작년 겨울에 나와 순천에서 잠깐 오셨던 광주 까리마스 수녀님들을 만났을 때, 올 겨울에 “다시 오라”는 나의 말을 기억하고 무작정 왔다고 한다. 안옥희와 량정주는 처음으로 김명화의 말을 듣고 함께 넘어와서 그 추운 날씨에 로가에서부터, 밤새도록 12시간을 산길로 걸어 화룡에 오늘새벽 4시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세 아주머니들에게 중국돈 1,000 원씩을 주고 (더 많이 주면 바로 돌아갈 것 같아), 작년에 뵈었

던 박정숙 수녀님과 의사들이 한국에서 1월 22일날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의사들에게 진찰도 받고, 의약품과 옷, 돈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하였더니, 기꺼이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옷과 약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안옥희 자매는 지금 임신 5개월째라고 한다. 그런데, 아기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5개월이나 지난 아기를 낙태시키겠다고 한다. 내가 절대로 낙태시키지 말고 낳아서 나를 주면 길러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돌아갈 때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 만큼 돌보아 주어야겠다. 중국에 돌아와서 낳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양자로 보낼 수도 있을텐데...

김명화 자매의 3살 된 딸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15살 된 딸(옥경)과 남편과 살고 있고, 여동생(김명실 -35세)은 장작을 쪼개다가 눈에 나무 조각이 튀어 들어가 눈에 각막이 생겨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는데,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술을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고 하니, 평양에 가면 수술할 수 있는데, 중국 돈으로 500 원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달러로 100 달러도 안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한쪽 눈을 장님으로 살아간단다.... 돌아갈 때 그것도 주어서 보내야겠다.

오늘 도와준 사람들: 김명화 - 1,000, 안옥희 - 1,000, 량정주 - 1,000, 김집사 -500, 이정호 집사 -500, 조집사 -500, 최집사 -500, 권철호 전도사 부인 -1,000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도 살아가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집에 탈북자 어린이들을 한 두명씩 데리고 살기 때문에 매년 겨울 내가 올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고 있음).

오늘 오후에는 유기촌 농장으로 들어갔다. 연길에 사는 한의사들 세명이 유기촌을 구경하고 싶다고 나를 따라 유기촌 농장에 왔다. 유기촌 농장에 와서 뉴욕에서

오셔서 봉사하고 계신 이하영 어거스틴 형제님과 아네스 자매님, 그리고 일꾼들을 만났다. 거의 일년만에 다시 온 곳이다. 연길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잤다.

1월 12일, 주일

아침 식사를 하고 손님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연길에서 양교수님 내외분과, 대전목장 아네스 자매가 와서 손님들과, 일꾼들과 함께 주님 세례축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오래 만에 향불도 피우고, 세례갱신 예절도하며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함에 성체를 모셨다. 거의 일년만에 집안에 성체를 모셨다.

대전목장 아네스 자매가 또 만두를 만들어와서 미사를 마치고 손님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공안국에서 젊은 공안원 두 명이 차를 타고 목장에 올라와 책임자를 나오라고 해서 내가 나갔다. 아주 거만한 말투로 식

사가 끝나면 집안을 수색하겠으니 들어가서 식사를 마치라고 하였다. 손님들과 나는 더 이상 식사할 기분이 나지 않아서, 식사를 대충 마치고 공안원을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더니, 집안을 대충 둘러보고 소성당을 살살이 수색하였다. 소성당을 수색하면서 성체함을 열어보라고 하여 성체함을 열면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니, 무엇이나고 묻기에 “성체“ 라고 말해주었다. 소성당을 이것저것을 수색하더니, 성무일도서와 9일기도서 등... 몇 가지를 압수하고, 또 나를 공안국까지 가자고 해서 공안국 차 뒷좌석에 타고 끌려갔다. 그 공안원이 나를 공안국까지 가자고 하면서 아마 내가 벌금을 내고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번에는 더 많은 탈북동포들을 돌보아 줄 결심을 하고, 더 긴 일정을 잡아 중국에 왔는데 와서 이틀만에 잡혀가게 된 것이 참으로 난감하였다. 무엇보다 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목숨

김기수 신부님(맨 왼쪽)과 중국에서 만난 탈북자들



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오는 탈북자들을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게 된 것이 한없이 가슴아팠다. 끌려가면서 나는 눈을 감고 묵주를 꺼내어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한 것은 마음을 기도에 집중하려고 한 의도도 있었지만,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 공안원놈들 모습을 보는 것이 역겨워서 그렇기도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중국에 와서 변방대에는 끌려가 본 경험이 있지만 공안국에 끌려가는 처음이다. 조사기도 따라 오라고





하여 조사기는 자기 차로 따라 왔다. 공안국으로 가는 도중에 공안원이 나에게 “천주교 신부” 냐고 물기에 나는 신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홍명은 - 공안과장) 다 아는데, 거짓말을 한

다고 하였다. 나는 즉시 거짓말 한 것을 후회하였다. 당당하게 천주교 신부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공안국에 가서 홍명은 과장은 조사기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고 나는 또 다른 공안원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나는 성의껏 특별히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인생의 무상함 등에 대해서 예비자 교리 가르치는 열성으로 설명해 주었더니 아주 관심 있게 들었다. 기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홍과장이 조사기를 심문하고 오더니 나에게 평양에 갔다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또 평양에 간적이 없다고 했더니, 황과장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데 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느냐” 고 하면서 평양에 구호품을 많이 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생각하고, 다시, “구호품도 많이 보내고 평양에도 다녀왔다” 고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으로, “아까는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천주교 신부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는 나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왜 월청으로 오게 되었는가 물었다. 나는 우리민족을 돕는 일을 하러 나선 사람인데, 현재 우리 프란치스코회에서는 소련과

중국, 카자스탄, 등... 중앙아시아 등지에 퍼져 살고있는 우리민족을 돌보기 위하여 파견되어 있고, 이곳에는 내가 오게 되었으며 이곳에 와서 둘러 보니까 유일하게 월청

진이 우리민족들이 밀집되어 살고있는 것을 알고 월청진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탈북동포들을 돌보고 있는가를 물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탈북자가 되었건 이곳 중국사람이 되었건 가리지 않고 다 돌보아준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탈북자들을 몇 명이나 데리고 있었느냐고 물기에 솔직하게 전에는 여러 명 데리고 있다가 잡혀서 벌금도 내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돌보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딘가에 열심히 오랫동안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하여 탈북자들을 돌보아주려면 자기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여권을 주고 내보내 주었다. 성모님께서 또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후에 조사기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연길에서 오신 손님들과 양교수님 내외분들이 모두 돌아갔다. 내가 지난 부활절에 영세를 준 월청진 박진장의 딸 미연이(글라라)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농장으로 왔다. **M**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김기수 신부님은 탈북자 돕기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프란치스코의 집' 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 또는 "맨하탄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당신의 겸손함을 닮게 해 주소서.

〈양 소피아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해마다 봄이 되면 한국의 구석구석을 노랗게 물들이던 개나리를 일상에 바쁘던 어느 하루 퇴근길 모퉁이에서 발견하고는 몹시도 반가워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환하게 봄소식을 알리던지요. 하느님께서서는 다양하게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기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몫을 하계끔 만들어 놓으셨음에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적 어느 해였던가 성모의 밤이 생각납니다. 라일락 향이 진한 성당 마당에서 조촐하게 이루어지던 행사에는 모두들 성모님께 편지를 준비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항상 엄마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성당을 오고 가던 나도 그날 그다지 절실하지도 않은 아이다운 요청을 편지로 써서 성모님께 드리고는 곧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기대하지도 않던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며칠 후가 지나서야 그것이 성모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서는 성모님을 통해 나의 마음에 조그만 신앙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지만 나는 줄곧 신앙에 대한 의문의 꼬리표를 단채 주님곁을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언젠가부터 나름대로 가끔 매일 미사도 하고 피정도 찾아다니며 신앙을 키워나갔지만 그러다가도 넘어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겨 죄도 짓고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예를 안 것은 꽤 오래 전부터입니다. 소식지와 책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메주고리예 소식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도 아주 먼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가



고 싶다고 생각했을때는 제가 미국에 와서 비자가 만료되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어서 출국할 수 없는 상태일때 였습니

다. 저는 메주고리예 성모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했지만 계속 어머니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 부족한 딸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2001년 여름에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성모승천대축일인 8월 15일에 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편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축하와 선물을 드려야 할 그날에 오히려 저에게 선물을 주시다니요. 결국 이렇게 저는 그 다음해 2월에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 부부 순례팀과 함께 메주고리예로 떠나게 됐습니다.

메주고리예에 도착한 날 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어머니께서는 진한 장미향으로 저를 맞아주셨는데 둔한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성모님의 선물이라고 깨닫지도 못하다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도착한 그날부터 돌아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축복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시간과 미사, 십자가산에 오르며 주님의 고통이 저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한없이 울었던 은총의 시간들, 함께 순례했던 신부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던 기쁨들, 아마

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이렇게 찬미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 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자주 그곳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베이사이드의 데레사 자매님 댁에서 매주 열리는 평화의 모후 기도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모후 기도모임에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명 남짓한 인원이었지만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겸손하시고 순수하신 신경남 신부님의 지도아래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성모님께서서는 정말 부족하고 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어 주님 사업에 쓰시고자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음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전히 참으로 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성모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참으로 많은 외부의 반대와 오해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인간적인 음해와 오해들은 기도가 아니면 견뎌내기 힘든 것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안에서의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부족함 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랑을 보고 그것을 서로 키워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은 잊어버리고 인간관계에 연연해하고, 아니면 스스로 하느님이 되어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제 사랑의 뭉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는 곧잘 신앙의 교만에 빠지는데 그것은 제안에서도 너무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통해 당

신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겸손뿐임을 깨닫습니다.

언젠가 맨하탄 성당의 성서강의 중 요나 수녀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붙던 떨기나무의 빛은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떨기나무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떨기나무는 떨기나무 일뿐이라고...

성모님, 저희가 당신을 닮아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나의 삶을 예수 성심과 성모성심께

<박 리사, 덴버 본당>

어느 날 레지오 마리에 주회에 참석해야 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주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몹시 아파와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회 참석도 포기한 채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데 20분 정도 되는 거리도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차를 정차시키고 약 기운을 못 이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레지오 주회 시간이라서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레지오 주회에 참석을 하고 나오는데, 본당 입구에서 뜻밖에 평화의 모후 센터에서 발행하는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식지에 나온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안내를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직감으로 머리의 아픔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승낙을 얻은 후, 순례를 신청하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왼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기다리는 그 마음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냥 설레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성모님 발현 20주년 기념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임언기 지도신부님, 안내를 맡으신

남그레고리오씨 부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오는 비행기의 연착으로 메주고리에 가는 비행기 연결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메주고리로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출발시간이 늦추어지는 기적이 일어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만나게 되어 마치 옛날 친구처럼 된 임바오르씨 부부를 알



게 된 것은 저에게는 성모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오신 다른 분들과 함께 뉴욕의 공항에서 출발하여 Amsterdam을 거쳐서 Split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지를 돌아보면서 Croatia인들의 가톨릭 신앙의 역사와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의 자연경치를 보면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메주고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온 세계에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각 나라의 신부님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던 작은 성당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한국어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순례자들과 그곳의 현 주민들과 함께 야고보 본당에서 크로아티어로 드리는 저녁미사와, 환희, 고통, 영광의 묵주기도와, 성체현시, 조배가 매일 저녁 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부님들의 강복과 안수로 성령이 함께하시는 은총이 가득한 성지순례 기도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사 전에 드리는 환희와 고

통의 묵주기도중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시간이 되면 (여름에는 6시 40분, 겨울에는 5시 40분) 사랑의 종소리, 평화의 종소리가 온 동네로 울려 퍼지고 성모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로 각 나라의 순례자들이 모두 자기나라의 말로 기도하고 노래 하건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는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음율로 울려 퍼지던 아베마리아와 평화의 모후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모든 순간 순간이 떠오르면서 메주고리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과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다 온 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의 산을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 하며 올라갈 때, 크고 작은 돌들을 골라 밟으면서 뽀족한 돌은 피하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발로 다듬어진 반들반들한 돌들을 골라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새겨진 곳에서 멀리 편한 쪽 만을 택하며 “예수님 미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갔지만 힘이 들고 발바닥이 아픈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도착하여 성모님께 제 자신을 봉헌하는 순간 그 동안의 제 자신이 이 기적으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피해서 남이 뉘아놓은 편한 돌들 위를 골라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을 오르실 때 저는 영화를 보는 하

나의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서 지켜보시며 부서지고 찢기신 처참한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함께 하신 성모님도 그분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산에 오를 때에는 맨발로 밟히는 대로 예수님의 고통이 새겨진 십자가의 14처 앞에서 마다 무릎을 꿇고 거친 돌을 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묵상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거친 돌을 피해서 올라 갈 때보다 훨씬 쉽고 시간도 더 빠르게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슴깊이 상쾌함을 가득 느꼈습니다. 십자가를 두팔로 꼭 껴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봉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함께하는 고통 속에는 기쁨이 쌍둥이처럼 따라다님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고통만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부터는 내 삶 속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함께 하시는

고통 뒤에는 부활의 축복이 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모님! 주님의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나의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고 너무나 소중한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위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신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꼭 껴안고 겸손 된 마음으로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과 미래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꺼히 봉헌합니다. 또 하나 메주고리에 순례의 체험을 나누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의 재활원을 방문했을 때 입니다. 마약과 알콜이 주는 쾌락의 늪에 빠져서 인간이하의 밑바닥 생활을 살면서 거리를 헤메이던 청소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선으로의 구원되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그들이 약은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회개 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노동을 하면서 변화되기 애원 했을 때 온전히 치유 받으며 예



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이야기 할 때 는 건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마냥 흘렸습니다. 그들은 무

분별한 생활로 에이즈에 걸렸으나 그 공동체에 들어온 후, 기쁘게 살다가 죽어간 동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그 공동체가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쾌락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들 조차도 일체 돈으로 구입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기도로 의탁하며 직접 성물을 만들어 팔면서 믿음 안에서 기쁘게 자급자족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모아진 돈으로 남미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그들이 집도 짓고 빨래며 음식까지도 직접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체험 발표를 하는 것을 볼 때 그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약물 중독으로 이 세상 떠난 청소년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그 소녀의 사진을 보는 순간 표현할 수 없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그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왔습니다. 나에게도 그 또래의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그 후부터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술과 약물에 중독 된 주위 청소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원 방문을 기회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실감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하루의 삶을 예수성심께, 성모성심께 봉헌합니다.

메주고리에를 다녀온 후에 기록하신 성체 앞에서...

**M**

## 웨인 와이블 초청 강연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고 다니는 “메주고리에의 메시지, 선교 사명, 추수”의 저자 웨인 와이블씨의 강연이 4월 25, 25, 27일 삼일동안 베이사이드 성당과 오렌지 성당, 맨하탄에 있는 아씨의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첫번째 행사로써 신경남 지도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와 강연, 성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성체강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웨인 와이블 씨는 85년도 자신이 루터란 교회의 개신교 신자일때 메주고리에에서 주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3개의 신문사와 출판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 전세계를 다니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있었던 감동적인 체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성체성사는 매일 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임을 전하며 우리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 성모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 는 성모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도 나약한 제 자신을 불평하지 않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해 봅니다. 그레고리오 형제님의 글을 읽으며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주고리에” 소식지가 꾸준히 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헌신적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 를 위해 기도드리며 감사사를 전합니다. <모니카>

17호 “메주고리에” 를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소식지를 읽으며 제 자신을

“메주고리에” 소식지로 이웃에 전교

이곳은 시골 공소인데 일년에 3-4번 정도 이곳을 찾아주시는 신부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저희들에게 “메주고리에” 소식지는 너무나 반가운 생명수입니다. 소식지를 돌아가며 읽어보고 이웃에게는 전교용으로도 전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받아본 소식지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워낙 어려운 이곳의 형편이라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8개월 쯤이나 소식지를 못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많은 도움은 못드리고 있으나 선교회 봉사자들을 성모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 <막달레나>

이곳은 시골 공소인데 일년에 3-4번 정도 이곳을 찾아주시는 신부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갈증으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단 발족

성모님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 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기위하여 자문위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 의 사

Jozo Zovko (메주고리에 본당 초대주임) 신부, 김기수 (맨하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주임) 신부, 정의철 (가톨릭 신학대학, 학장) 신부, 표신천 (밀워키 한인성당 주임) 신부, 박명근 (하드포드 한인성당 주임) 신부, 백남국 (디트로이트 한인성당 주임) 신부, Wayne Weible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추수 의 저자), 남기욱 마르타 (선교학 박사)

교황님의 2003년 6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방문

<2003년 6월 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5세는 헤르체코비나에서 봉헌한 미사에서 오직 화해만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씀 하시면서, 이 나라에서 가톨릭에 의해 저질러졌을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8년전 교황님께서서는 바티칸을 방문한 크로아티아 시절에게 공식적으로 메주고리에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Tomasek 추기경을 비롯해 많은 주교님들이 증거하기를 교황님께서서는 “내가 교황만 아니었다면 메주고리에를 방문하여 순례자들의 고백을 듣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 하기도 하셨습니다.

2003년 6월,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를 방문하신 교황님께서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1992-95의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 나라에 큰 영향을 주셨으며, 이반 메르츠(1896~1928) 시성식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과거의 많은 희생과 피로 점철된 이 나라에서 저는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행해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손상시킨 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며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합니다. 오직 이런 화해의 무드만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이 헛되지 않게 할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와 새로운 형제애를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다시한번 화해와 만남과 평화의 땅이 되도록 용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용서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승화시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2003년 세계 청소년 대회의 메시지 끝에 “나는 언제나 나의 삶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의 사랑과 현존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항상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기도의 은총

## 청소년들이 바치는 묵주기도

지난 봄방학을 이용하여 메주고리에 온 Notre Dame 학생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카드놀이나 Computer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학생 하나가 묵주를 꺼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모두들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 둘씩 묵주를 손에 들고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단마다 “아베마리아” 까지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으며 북적거리는 공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2002년 세계 청소년대회에서 교황님께서 “인류는 젊은이들이 자유와 용기를 가지고 현세에 대한 믿음을 힘차고 열의있게 선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가는 길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차안에서 묵주의 기도를 하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11/2002)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주고리에의 결실입니다.

## 종교를 초월해서 드리는 묵주기도

제가 16년 전 미국 인디애나의 St. Joseph Catholic High School 의 선생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종교심리학과 사무실의 한 책상서랍에 묵주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11년간 한번도 그 누가 만져보지도 않았던 것들 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느 학생이나 선생조차도 아무도 그것을 가지려고한 사람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소식을 들은 후, 그 묵주들이 다 없어지고 그 후 2년간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묵주를 갖다 주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개신교, 유태교, 세르비안, 오소독스 심지어는 무신론자의 가족들까지도 묵주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들의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묵주를 받아갔으며 어떤 학생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 묵주기도

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의 부름으로부터 뜨거워진 젊은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가정에 까지 함께 모여앉아 묵주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 가정을 지킨 아이들의 묵주기도

자녀들의 기도는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학생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그의 엄마와 이혼을 한다고 알려주었을 때 그 학생은 그의 동생과 함께 매일저녁 묵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일주일 뒤 그의 아버지는 이혼을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부터 온 식구가 10년만에 처음으로 미사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말하기를 그의 가족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그 학생과 동생이 마음을 모아 매일같이 성모님께 묵주의 기도를 드린 결과입니다. 이 가정은 성모님의 보호의 망토 안으로 불리워진 것입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임원

지도신부 : 신 경 남  
 회 장 : 남 흥 익  
 부 회장 : 임 베드로, 장 혜 영  
 총 무 : 박 영 철  
 회 개 : 박 크리스티나  
 서 기 : 양 의 현  
 봉사부장 : 손 난 영  
                   이 해 임  
 기도회 보급담 : 장 혜 영  
 인터넷 담당 : 임 베드로  
                   조 혜 선, 최 규 석  
 소식지 편집인 : 남 미 자  
                   이 인 자, 양 의 현, 오 영 속



# Queen of Peace Missionary

## Twenty-second Anniversary of Our Lady's Apparitions in Medjugorje

Message of June 25, 2003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with great joy to live my messages. I am with you and I thank you for putting into life what I am saying to you. I call you to renew my messages even more, with new enthusiasm and joy. May prayer be your daily practic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June 25, 2003 - Message of Our Lady,  
given to Ivanka during her annual  
apparition

"Dear children! Do not be afraid, I am  
always with you. Open your heart for love  
and peace to enter into it. Pray for peace,  
peace, peace."

"Through the rosary open your heart  
to me"

### THE 14th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in Medugorje

**July 27, '03- August 08, '03 13Days**

Each every year, numerous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 to Medugorje to find Jesus through our  
Blessed Mother. Our Lady tells them: **"If you so wish,  
grasp for the rosary. Even the rosary alone can  
work miracles in the world and in your lives."**

(25.1.1991)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visit  
Medugorje with your children!**

Application form available :[www.qpmm.org](http://www.qpmm.org)



**Monthly Reflection  
on our Lady's Message**

**JOHN PAUL II  
"The Year Of Rosary"**

**"Sound of Medugorje"  
Conversion Story**



"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with great joy to live my messages. I am with you and I thank you for putting into life what I am saying to you. I call you to renew my messages even more, with new enthusiasm and joy. May prayer be your daily practic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ssage of June 25, 2003

### **"RENEW MY MESSAGES EVEN MORE, WITH NEW ENTHUSIASM"**

The Gospel is the Joyful News. Joy resounds in all its pages, because God has decided to visit and save his people. At the Visitation to

Elizabeth, Mary cried out: *"My soul magn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ur!"* (Lk 1,46) At the Annunciation, the angel Gabriel greets Mary with the words: *"Hail (rejoice), full of grace...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ur with God."* (Lk 1,28.30)

Today, Mary, Queen of Peace, speaks to us with great joy, and she wants us also to be joyful. To live her messages means to be led to true joy. To follow the voice of the Mother means to find a home and safety. To obey to her voice means to become more joyful, liberated and redeemed; friends of God, to whom Mary guides us. Her messages are like signposts on the road, so that we do not get lost. We need these signals to find an unknown place. However, if we remain still, we will never arrive. We have to start walking and to keep on walking. The way will perhaps not always be paved or straight, but it is important to walk. On the way, we will stumble, fall, bleed... but it is the goal that counts, God, the source of life, for whom our heart languishes.

Mary knows the way better than us; she knows Jesus better than we know him. The purpose of her messages is to make us join with and meet Jesus. Mary wants us to be joyful. Our joy is also her joy, just as our sufferings are also her sufferings.

Mary thanks us, whereas it is us who should thank her for her presence, her proximity, her patience. She loves us with a disinterested love, as if she was asking us: "May I love you? Will you allow me to lead you to life, to joy?"

Mary knows well the human heart. She knows that it glows easily, and that its enthusiasm disappears even more easily. This is why she told us: 'Renew the enthusiasm of the first days of my coming', and today, she tells us: *"Renew my messages even more, with new enthusiasm and joy"*. The first days and the first years of her coming were full of enthusiasm, of joy, of readiness to suffer and to give all for Our Lady and for God. However, narrow and selfish human interests enter easily into this small corner of Heaven that Mary offers to us here; interests that darken the eyes of our hearts, which, then, cannot recognize any more the Heaven that came to us, and that continues to come here, to Medjugorje, through Mary.

What occurs here is a gift from Heaven, a visitation of grace, which can remain fruitless for us if we do not receive it with a humble and open heart. We receive Mary in so far as we love our neighbours, in so far as the strength to support daily crosses grows in us. We receive Mary in so far as we are able to forgive more easily, to raise ourselves above the earthly dirt towards which our weakness attracts us, towards which this world draws us, offering much, but finally taking away everything.

Mary does not threaten us when she says: "A time will come when I will no longer

## Queen of Peace Missionary

be with you in this way". The nearness of her heart, and of her soul means time of grace. This is why Mary, Queen of Peace, today, on this 22<sup>nd</sup> anniversary of her apparitions, attracted so many hearts and such crowds, who are hungry and thirsty for God. Mary knows to whom she is coming, but all the pilgrims, who came today and who came on pilgrimage to Medjugorje during all these years, also know to whom they are coming to. In Mary, they recognized their Mother, the Mother of the Saviour (like Elisabeth did), and they were not mistaken.

Today, Mary wants to awaken all the hearts that are asleep. She can do it and she wants to do it. She is doing it today. Let us help her, so that she can help us. Let us approach her by our daily prayer; because without prayer we cannot be close to her Heart and to the Heart of her Son, our Saviour Jesus Christ.

Let us allow her to lead us to joy and peace - to Jesus. Let us allow her that.

Fr. Ljubo Kurtovic  
Medjugorje June 26, 2003

© Information Centre "Mir" Medjugorje, [www.medjugorje.hr](http://www.medjugorje.hr).

Excerpt from "Apostolic Letter" of Holy Father

...With these words, dear brothers and sisters, I set *the first year of my Pontificate* within the daily rhythm of the Rosary. Today, *as I begin the twenty-fifth year of my service as the Successor of Peter*, I wish to do the same. How many graces have I received in these years from the Blessed Virgin through the Rosary: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I wish to lift up my thanks to the Lord in the words of his Most Holy Mother, under whose protection I have placed my Petrine ministry: *Totus Tuus!*



### October 2002 – October 2003: The Year of the Rosary

3. Therefore, in continuity with my reflection in the Apostolic Letter *Novo Millennio Ineunte*, in which, after the experience of the Jubilee, I invited the people of God to "start afresh from Christ",<sup>(6)</sup> I have felt drawn to offer a reflection on the Rosary, as a kind of Marian complement to that Letter and an exhortation to contemplate the face of Christ in union with, and at the school of, his Most Holy Mother.

### July

**General:** *An economy at the service of all.*

That governments, and those responsible for the economy and finance of the world, may make an effort to find modalities and conditions which guarantee all peoples the necessary means to live in a dignified way.

**Missionary:** *The sick people of Africa.*

That all those in Africa who are sick—the victims of AIDS and other serious diseases—may experience the consolation and love of God thanks to the services of the doctors and those who lovingly take care of them.

### HOLY FATHER'S PRAYER INTENTIONS 2003



## Sounds of Medjugorje

Michael O'Brien – Rock Musician

By Wayne Weible



Michael O'Brien, a 25-year-old native of Cleveland, who was rapidly developing into a talented rock musician, had come to be involved with Medjugorje. Six months earlier a friend showed him a tape about the apparitions. He was immediately convinced it was real, and insisted his parents to go to see firsthand what it was about. As good Catholics who

had tried their best to raise their kids in the faith, he was sure they would want to make a pilgrimage.

What Michael didn't count on was going with his parents. They asked all of their other children but none had accepted. Michael, acknowledged as the least religious of the family, was the last one they thought would go with them. He was into rock music and all that came with it. Good and bad. And now their son was on the verge of possibly getting a national contract and an opportunity to be a recording star. For reasons unknown to him or his parents, Michael said yes. A few weeks later, they were on pilgrimage to Medjugorje.

The family spent the first few days doing what everyone else coming to Medjugorje does: climbing the hills and mountains, going to Mass and sharing stories with others. Michael was unimpressed. It was only when their group went to meet visionary Vicka that this involvement began.

Standing around after Viska had spoken to their group, watching her sign autographs and having her picture taken with the pilgrims, he imagined himself someday doing the same as a start singer.

Suddenly, Vicka looked at him and asked for a pen and paper. She began writing furiously; giving the note to Michael and telling the interpreter that it was a special message for him from Our Lady.

The young man didn't know what to do or say. The message was written in Croatian. He was shocked when the guide said, "Vicka says it is a special message for you from the Blessed Mother; it says: ***'With your ability and musical talent, you can lead young people to God.'***"

Michael was stunned. He had never seen Vicka before, and she had no way of knowing he was a musician. He stuck the note in his pocket, convinced that something special was happening, but not willing to accept its consequences or its effect on his rising sings career. In the course of his remaining days at Medjugorje, Michael experienced several other mystical occurrences that both confirmed the message and frightened him. Struggling to ignore them, he was relieved when they finally left for home and the note was stuck in a dresser drawer and forgotten.

6 month later, I (Wayne Weible) met Michael. I asked why he didn't follow up with what had been given to him if he thought it was from the Virgin Mary. He just shrugged his shoulders. Why did he

go to Medjugorje in the first place? "Well, it was a good way to see a part of Europe," he answered with a giggle.

During my talk, he talked about how ill effects that rock music had on so many young people, staring directly at Michael. But Michael never flinched; he had heard it all before.

Knowing this was my last chance, I approached Michael once again. "Why didn't you do something about the note? I mean, if it's really from the Virgin Mary, don't you know there are some beautiful religious songs that, well, you could do in a rock style. For instance, there is this song called 'Gentle Woman', which is beautiful, and there are others like it." Michael said, "I don't know any of those songs but, who knows, maybe someday....."

Several weeks later, I received an audiocassette tape in the mail. It was from Michael. On it was the most beautiful singing of "Gentle Woman" I had ever heard! I sat there listening to it over and over, with chills – and tears. Then I received another audiocassette tape with five religious songs

recorded by my new musician friend. The tape was called, "Sounds of Medjugorje." He had done the entire tape by himself, unknown to the rest of his rock group or his manager.

---

### A Prayer from Our Blessed Mother,

(The following prayer was dictated by Our Lady to Jelena Vasilj (locutionist) on April 19, 1983:)

**Oh my Mother!  
Mother of goodness, love and mercy!  
I love you immensely, and I offer myself to you.  
Through your goodness, your love,  
and your mercy, save me!  
I desire to be yours.  
I love you immensely  
and I desire that you protect me.  
In my heart, oh Mother of goodness,  
give me your goodness,  
so that I go to Heaven.  
I ask you for your immense love  
that you may give me the grace  
that I will be able to love each person  
just like you loved Jesus Christ.  
I ask you for the grace  
that I be able to be merciful to you.\*  
I offer myself completely to you  
And I wish that you will be with me at each step,  
because you are full of grace.  
I wish never to forget your grace,  
and if I should lose it,  
I pray that you will restore it to me again. Amen.**



\* The phrase "I ask you for the grace that I be able to be merciful to you," means: "Give me the grace to love your will which is different than mine."

기도와 평화의 마을

## 9 월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단 한 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22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순례 방문지: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출발 날짜: 9월 22일~30일(8박 9일)  
순례 경비: \$1450 (뉴욕 출발 기준)

## 10월 성모 발현 성지순례

“묵주를 손에 쥐고 너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라....  
기도하는 가정 하나 하나가 내 아들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10월은 거룩한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자녀는 하느님의 축복이며,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성모님께 봉헌합시다.

순례 방문지 : 프랑스 루르드, 기적의 메달, 소화 데레사 기념 성당과  
생가 방문, 메주고리에

지도 신부 : 박명근 클레멘스 신부 (커네티컷 하드포드 한인천주교회 주임)

출발 날짜 : 10월 20일 ~ 31일. (11박 12일)

순례 경비 : \$1,900 (뉴욕 출발 기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뉴욕대교구 소속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주 정부에 가톨릭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본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 고자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실 봉사자 및 후원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월간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2.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3. 메주고리에 목격 증인 및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개최
4. 메주고리에 관련 책자 번역 출판 및 보급
5.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6. 한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그외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교사업에 함께 참여하시는 후원회원님들께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원님들께는

1.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접하고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3.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첫 토요일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금은 IRS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 “메주고리에” 는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본당의 봉사자님들은  
전화나 팩스 또는 E-mail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631-367-6191 / Fax.631-367-6194 / e-mail : contact@qpmm.org >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영문 :	영세명 :		
주소 :				
자택전화 :	직장전화 :	Fax : H.P.:		
e-mail 주소 :	소속 본당 :			
해당란에 0표하여 주십시오.	매월 ( )	6개월 ( )	1년 ( )	기타 ( )
보내실 곳 (Mail to)	USA : 남 그레고리오 e-mail : gregorynam@hotmail.com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한국 : 허혜경 안젤라 e-mail : hkh2123@hanmail.net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031-878-7362 / HP.017-785-3535)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고  
너희들을 초대한다.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 E-mail : contact@qpmm.org

USA

북미지 미카엘라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 e-mail. gregorynam@hotmail.com

한국

어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 031-878-7362 / HP. 017-785-3535 / e-mail : hhk2123@hanmail.net